

에너지 신기술 한자리에...국내 최대 에너지박람회 열린다

‘빅스포2018’ 10월 31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서 개최
친환경 중심 에너지 전환·사물인터넷 디지털 변환 모색
280개 기업 참여 160개 발명품 출품...7만 관람객 예상

국내 최대 종합에너지박람회가 열린다.

한국전력은 28일 ‘2018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이하 빅스포 2018)를 오는 10월 31일부터 3일 동안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와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빅스포는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장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이번 빅스포의 이번 주제는 ‘Energy Transition & Digital Transformation’(에너지 전환 & 디지털 변환)으로, 지난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에 이어 올해는 4차 산업기술의 발전상을 직접 경험하는 행사로 꾸며진다. 친환경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에너지 플랫폼 기술 등 디지털 변환에 대한 에너지 패러

다임의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빅스포 2018에는 신기술전시회에 280개 기업이 참여하고 국제발명특허대전에 160개 발명품이 출품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제컨퍼런스 40개 세션이 진행될 예정으로 행사기간 7만명의 관람객(해외 3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등 대규모 국제행사로 치러질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 신기술을 전시하는 ‘에너지 전환관’과 ‘디지털 변환 테마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미래혁신 Start-Up관’ 등 에너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우수 전시관이 운영된다.

또 비즈니스 매칭시스템을 통해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는 ‘마켓 엑스포’로서의 기능도 강화될 방침이다. 그동안 한전이 매년 열고

있는 동반성장 박람회도 올해 빅스포와 통합 개최함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결시키는 등 에너지 분야 비즈니스 성과도 창출해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THE DIGITAL TRANSFORMATION PLAYBOOK’의 저자이자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인 ‘데이비드 L. 로저스’ 교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구축 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다.

이외 한전은 빅스포가 지역과 함께하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도 함께 진행한다.

우선 미래 신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신기술체험관’과 채용박람회, 채용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테크니컬투어, 컬처투어, 한전 본사 투어, 시티투어 등도 운영하며 오케스트라 공연과 버스킹 공연 등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빅스포 2018’ 행사와 관련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www.bixp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지난해 열린 ‘빅스포 2017’ 행사장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한전은 오는 10월 31일 ‘Energy Transition & Digital Transformation’을 주제로 ‘빅스포 2018’을 개최한다. <한국전력 제공>



aT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운영 중인 한국 농식품 홍보관 앞이 사물놀이 공연을 보러 온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aT 제공>

aT,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한국농식품 홍보관 운영

내달 2일까지 아시안게임 기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오는 9월 2일까지 제18회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서 한국 농식품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aT는 현재 글로라봉까르노 주경기장 옆 ‘수디르만몰’(Sudirman Mall)에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아시아 지역에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위주로 구성했다. K-Fresh, Red&Hot, 할랄식품, 인기상품, 미래클러스 등 총 5개 테마관으로 운영한다.

특히 복숭아, 배 등 신선과일에 대한 흥

보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는 현지 수요를 반영해 오미자, 복분자즙 등도 현지인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별 판매·홍보부스 9개를 운영, 쇼핑객 방문객과 경기장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국 농식품 수출유망 품목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농식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한국식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사학연금공단,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사학연금공단(이사장 이종훈)은 28일 정보보호 관리수준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MS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수립·관리·운영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다. 인터넷진흥원은 해당 기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여부와 그 적절성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사학연금공단은 대표 홈페이지 관리시스템에 대상으로 13개 분야 104개 통제항목에 대해 해당 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를 통해 정보보호 수준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공공기관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 정보 뿐만 아니라 급여지급내역 등 민감정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보안파트

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는 등 보안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ISMS 인증기간은 오는 2021년 7월 26일까지 3년이며 최초심사를 통해 인증을 획득한 후에는 매년 사후 심사를 통해 관리체계가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종훈 이사장은 “ISMS인증은 준비하는 과정은 공단의 정보보호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방대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호남권 ‘하계 게임문화 가족캠프’ 성황리 마쳐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최, 초중생 등 300여명 참석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김영준)은 호남권과 수도권, 영남권 지역에서 진행된 ‘하계 게임문화 가족캠프’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게임문화 가족캠프’는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소통 프로그램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

여하며 평소 나누기 어려웠던 게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보는 행사다.

올해는 해당지역 초·중학생과 학부모 300여명을 대상으로 창의력과 논리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게임체험 교육’과 가족 대항전인 ‘e스포츠 체험’ 등이 진행됐다. 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초청 특강으로 게

임에 대한 부모와 아이의 시각차를 줄이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편, 한콘진은 올 하반기 ‘2018 동계 게임문화 가족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동계 캠프는 올해 12월과 내년 1월 중 총 5회에 걸쳐 개최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2018 게임문화 가족캠프 운영팀(전화 1670-3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회사 사정상 급매 합니다.

- ✓ 38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급매 - 8400만원

- ✓ 53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7층, 코너, 전망 좋음, 전체 올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 ✓ 시세 - 1억 5000만원
- ✓ 급매 - 1억 1400만원

문의. 010-4920-9300